



제목	동서양의 접점 :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발행일	2017. 11. 30.
저자	고일홍 외 14명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332
ISBN 또는 ISSN	978-8952119322

**내용 요약**

이 책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 지역을 직접 탐사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아나톨리아 지역의 차탈회옥 유적에서 발견된 인류문명은 기원전 74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스탄불은 비잔틴 제국 1000년과 오스만 제국 500년 그리고 터키 공화국 100년의 역사가 중첩된 곳이다. 또한 아나톨리아와 이스탄불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지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 교회의 세 그룹중 하나인 정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스탄불에 있고, 기독교 교회의 세 그룹이 모두 인정하는 일곱 차례의 초기 기독교 공의회가 이스탄불과 그 인근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모두 이 지역에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기독교와 더불어 아브라함 계 종교로 분류되는 이 두 종교도 기독교에서처럼 아브라함을 중요한 인물로 간주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도 이 지역의 산루르파(Şanlı Urfa)이다. 이처럼 아나톨리아와 이스탄불은 가히 '인류문명과 종교의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으며, 동서 문명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는 '아나톨리아의 고대문명'이라는 제목 하에 차탈회옥 유적, 트로이 문명, 고대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 서양철학이 탄생한 밀레토스 지역, 알렉산드리아와 조선의 관계 등을 다룬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비잔티움과 기독교 문명'이라는 제목의 제2부에서는 비잔틴제국의 중심 콘스탄티노플, 하기야 소피아, 네스토리우스안 기독교인 경교, 성상파괴운동, 십자군 등을 다룬 논문들을 통해 비잔틴제국에서 형성된 독자적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3부 '오스만제국과 이슬람 문명'에서는 오스만제국의 관용, 버가모 아스클레피온의 의사 갈레노스, 오스만 최고의 건축가 미마르 시난, 근대 영국인의 터키 여행기에 나타난 터키의 모습, 근대국가 터키 등을 다루고 있다.